

##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친애하는 사이타마 교구 형제자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매년, 새해 첫 날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서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날을 1968 년, 큰 나라들의 압력으로 커다란 긴장상태에 있던 세계에 평화를 기원하여, 교황 바오로 6 세께서 「세계평화의 날」로 지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세계 전역에서 전쟁이 멈추지 않았지만, 가톨릭 교회의 평화에 대한 노력은 전세계에서 강해지고 있으며 오늘날의 일본에서도 강하게 느껴집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도, 교회의 수장으로서, 가톨릭 신자뿐 아니라,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부르셔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거의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 년이 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헤아릴 수 없는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거의 모든 성당에서,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거리를 두고 미사가 재개되어도 공동체에 돌아오지 않는 분들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임신부를 시작으로 사목위원회, 다양한 그룹의 활동을 다시 재출발 시킵시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하는 생활은 아직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생활을 조금씩이라도, 열의를 가지고 재출발합시다.

그에 기억나는 것은 교황 성(聖) 요한 바오로 2 세가 1979 년 라틴 아메리카 주교들의 대회를 위해 멕시코를 방문했을 때, 「새로운 복음 선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로운」이란 「새로운 열의, 새로운 방법과 궁리, 새로운 시대의 현상에 응하는 내용」이라는 의미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생활을 주일미사 참례로 시작하여, 주님과 일치할 바탕으로 함께 기도하는 의식을 각 소교구에서 살려, 애덕의 실천을 넓히는 것으로, 하느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게 됩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새해를 시작합시다.

사이타마교구 주교라고 하는 중책을 담당하고 나서 5 년째를 맞이하는 해에, 사이타마 교구의 특별한 풍성함으로써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교구 안에 많은 외국 국적의 분들이, 한시적인 여행자로서가 아니라 정주자(定住者)가 되어 성당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일본 사회 속에서 공헌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는 하나의 큰 공동체입니다. 하느님께서 보내 주신 외국인 분 들과의 교제를 깊게 하고,

각 교회에서 함께 걸어 가는, 그 행보를 한층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의 주교로서의 모토(좌우명, 방침)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가 새해를 맞이한 교구의 모토가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새해 축복을 보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23년 첫 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가톨릭 사이타마 교구 교구장  
주교 마리오 야마노우치 미치아키